

전자간증 환자에서 혈청 알부민이 산모 및 태아에 끼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¹

신석준, 김영옥, 윤선애, 이수선¹, 박태철¹, 김석영, 최의진, 장윤식, 방병기

임신과 관련된 고혈압성 질환인 전자간증은 전신적인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에 의해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혈관 투과성의 증가가 증명되어 있는 질환들에서 저알부민혈증은 이러한 혈관 투과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자간증 환자에서 저알부민혈증은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산모 및 태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연구자들은 19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전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3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혈청 알부민이 산모와 태아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를 입원 중 최저 혈청 알부민 치에 따라 3.0 g/dl 이상 군과 미만군 두 군으로 나누어 산모 및 태아의 이환율의 발생 빈도를 비교하였다.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30±5세였으며 초산은 201명 (51.5%)이었다. 임신 기간은 평균 35.5±3.4주 였다. 전체 392명중에서 입원 중 최저 혈청 알부민이 3.0 g/dl 미만인 환자는 280명 (71.4%)이었다. 최저 알부민이 3.0 g/dl 미만 군은 이상 군에 비해 쌍태아의 빈도가 높았으며 (7.5% vs. 1.8%, p=0.030) 산모 합병증으로 급성 신부전증 (12.5% vs. 3.6%, p=0.008), 간기능 이상 (33.5% vs. 12.2%, p<0.001), 혈소판 감소증 (37.8% vs. 19.6%, p=0.001)의 발병율이 각각 높았으며 24시간 요단백량이 많았다 (2.86±3.37 vs. 1.04±1.99 g/day, p<0.001). 또한 태아의 합병증으로 최저 알부민이 3.0 g/dl 미만 군은 이상 군에 비해 태아의 자궁내 성장지연의 발병율이 높았으며 (25.0% vs. 12.5%, p=0.011) 분만시 태아의 체중이 작았다 (2.5±0.8 vs. 2.8±0.8 kg, p=0.002). 그러나 산모의 연령, 임신기간, 폐부종, 전치태반, 산후 출혈, 태아 사망율의 빈도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전 예에서 산모 사망은 없었다. 이상으로 전자간증 환자에서 저알부민혈증은 산모 및 태아의 이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